

2021년

청소년 · 청년
청소년 · 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작품집

청소년과 청년이 노동현장에서 경험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

•

+

+



+

+

+

2021년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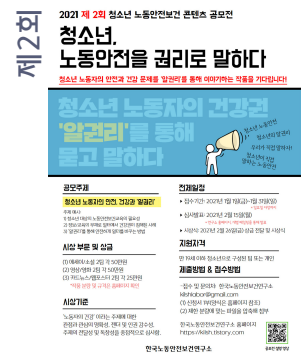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은 2020년 상반기 처음 시작되었고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제2회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제2회 공모전의 주제는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 건강과 ‘알권리’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함께 제3회 공모전을 주최하게 되었고 공모 대상을 기존의 청소년보다 넓혀 만 24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공모 주제는 청소년, 청년의 일터에서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경험을 5일간의 일기로 쓰는 것이었으며,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아래의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9일~11월 19일까지 작품을 접수하여 총 4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키워드>

- 1.유해위험요인(소음, 낮은온도·높은온도, 무거운 물건 옮기기, 장시간 같은 자세, 먼지·분진, 진동, 유해가스·유기용제)
- 2.업무상 스트레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감정노동)
- 3.노동시간(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휴게시간)
- 4.산재경험(주변인·동료의 산업재해, 일하다 다쳤던 경험)

작품집에는 선정된 작품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배성민 회원, 박시윤 상임활동가, 이나래 집행위원장,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상임이사,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김찬 활동가가 함께 심사하며 남겼던 심사평이 담겨있습니다. 각 작품의 마지막에는 일기의 내용과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한 Q&A가 실려있습니다.



제3회

목차

- 나의 알바 이야기 5p
 - 심사평 12p
 - 이럴 땐 어떻게 하지? Q&A 14p

- 나의 인생 첫 아르바이트는 진행 중! 19p
 - 심사평 29p
 - 이럴 땐 어떻게 하지? Q&A 31p

-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36p
 - 심사평 41p
 - 이럴 땐 어떻게 하지? Q&A 43p

- 알바지옥 48p
 - 심사평 53p
 - 이럴 땐 어떻게 하지? Q&A 55p +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 선정작 1

나의 알바 이야기

나의 알바 이야기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 선정작

1일차

나는 식당에서 일하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로에 있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는 주방 이모나 사장님이 좋으신 분들이셨고 힘든 일 없이 처음 했던 알바를 마무리 할 수 있었기에 두 번째 알바도 자신 있게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일하던 곳은 크기도 커서 총 5~6명이서 일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밤을 새워야하는 알바이기 때문에 알바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만 두고 금방 뽑혔다. 나랑 비슷한 시기에 4명이 입사하여 일을 배우게 되었다. 알바생들도 재밌고 잘 맞아서 힘든 일임에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순간 재밌던 알바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변했을 때가 있었다.

그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다. 멧돼지를 닮았으니 그 사람을 멧돼지라 부르겠다. 처음에는 다 같이 오순도순 재미있게 지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쓸데없는 스킨십을 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콧코 찌르는 행동부터 시작했다. 그다음부터는 어깨를 잡고 쓰다듬는 행동, 배를 누르는 행동, 은근슬쩍 뒤에서 안는 행동 등 나의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했고 참다못해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 친구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바였고 멧돼지는 직원이었기에 아무 말 못 한 것도 있다. 우리가 사장님한테 말한다 한들 알바생보단 직원이 더 필요하실 입장이니 잘려도 우리가 잘린다는 것을 알기에 잠자코 있었다. 이런 행동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게 일상이었다. 나는 그런 화를 받아줘야 했고 언젠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사람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으면 알바하는 내내 나를 무시했고 나는 알바하면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멧돼지의 눈치를 봐야 했다. 욕을 자주 했고 욕하면서 항상 자기가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다. 그제야 사장님도 상황 파악을 하시고 멧돼지를 정리하셨다.

아마 사장님이 멧돼지를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여자 알바생들은 한 번에 그만뒀었을 것이다. 그때 성희롱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성희롱이라고 말하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결국 피해 보는 것은 나였기에 아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리기가 두려운 것이다.

2일차

대학로에 있는 술집에서 알바하다 보니 사람이 많았다. 나는 주말 알바라 특히 손님이 많았고 보통 10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했는데 쉬는 타임 없이 계속 일해야 했다.

10시~2시 사이가 제일 바쁠 시간이기에 회전율이 중요했고 한 테이블이 나가면 빠르게 테이블을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테이블 주문도 받아야 하고 서빙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테이블까지 치우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기에 항상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했다. 또한, 술집이 넓었기에 바쁠 때는 뛰어다니면서 서빙을 해야 했었다.

비 오는 날이나 물을 엮질러 바닥이 흥건할 때 뛰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바쁘니 어쩔 수 없이 떨어 수밖에 없다. 알바생 대부분은 넘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넘어지진 않더라도 깨끗하는 상황이 많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나 또한 넘어져 보았고 넘어진 후에는 하루종일 허리를 부여잡고 일을 해야 했었다. 깨끗한 경험도 많아 발목이 자주 아팠었다. 주방에서 설거지해서 나온 식기들을 옮겨야 했었는데 무거웠기에 주말 알바를 하고 나면 팔목 발목이 아파 고생을 했었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테이블을 빨리 치워야 했기 때문에 한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쟁반 하나에 올려서 치워야 했다. 그렇기에 테이블 위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위에 최대한 많이 쌓아 올려 주방으로 가져다주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글라스 잔을 싹다가 넘어뜨렸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잡으려던 내가 글라스 잔이 깨지면서 내 손가락을 스치고 말았다. 처음에는 놀랐을 뿐인데 피가 툭툭 떨어져 당황했었다. 사장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셨지만 피가 멈추지 않으면 응급실 가서 꿰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응급실에 가서 꿰매야 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 이 주일 정도는 밴드와 붕대로 감싸고 다녀야 했고 지금은 작게 상처가 나 있다. 아무래도 내 몸에 상처가 있어서 이 상처를 보면 기억을 못 할 수가 없다.

술집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카페는 뜨거운 물이나 기계를 접할 일이 많았기에 조심하려고 해도 한눈팔면 데이는 게 일상이다. 부쩍 추워진 탓인지 뜨거운 음료를 시키는 사람이 많아졌고 스팀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스팀 하는 기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빠르게 진행해야 했다. 그러다 스팀을 너무 많이 하여 우유가 터져버렸고 눈 쪽에 튀어 위험천만했던 일도 있었다. 커피머신은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커피 샷을 내리다가 손님이 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데어버리기도 했다. 큰 상처가 생긴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손이 거칠어졌다는 것이 느껴져 속상했다.

3일차

나의 대학로 술집 알바는 보통 저녁 10시부터 시작해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다. 그렇지만 시급이 다른 곳들보단 높았기에 주말만 참고 일하자는 마음으로 알바를 하였다. 내가 일한 곳은 대학로 술집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고 새벽 5시에도 손님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일이 발생하였다. 알바생들은 로테이션 형식으로 오픈조, 중간조, 마감조가 있었고 직원들은 3~4명이 있어 6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는 방식이었다. 어느 순간 알바생들이 많이 나가버리고 직원 한 명이 연락하지 않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버리는 바람에 자리를 메꿔줄 사람이 없어 내가 메꿔주기로 되었다.

금요일, 토요일에만 일하던 나는 평일에도 일하게 되었고 평소 주말에 10시 출근이던 나는 8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게 되어버렸다. 10시간을 거의 서 있고 새벽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어도 살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10시간을 일하다 보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었는데 버스정류장은 약 15분 정도 걸어야 나왔다. 하지만 나는 돈을 아껴야 했고 택시비가 아까웠던 나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였다. 그렇게 6시에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7시쯤이 되고 씻고 나오면 8시쯤이 되었다. 그렇게 잠을 청하면 5시쯤 일어나 씻고 밥 먹으면 다시 출근해야 할 시간이 왔었다. 나는 대학교 수업에 집중 할 수 없게 되었고 내 몸이 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 이후로 약 1개월을 더 일한 뒤 그만둘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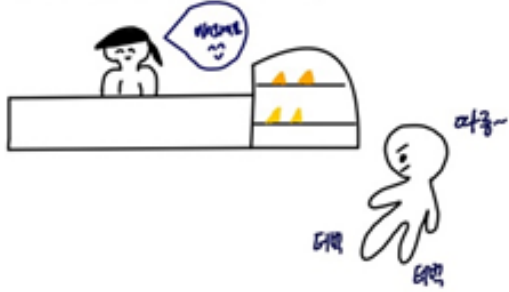
나의 술집 알바는 장시간 노동에 교대근무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간조와 마감조를 내가 같이하게 되었고 휴게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했었다.

일한 만큼 돈을 벌게 되었고 나는 그 돈으로 쉬면서 학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돈은 쓸수록 없어졌기에 알바를 다시 해야 할 타이밍이 왔고 약 4개월 뒤에 한 프랜차이즈업에서 일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일까. 5시간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는 말을 들었다.

휴게시간으로 인해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밥을 챙겨 먹을 시간과 휴식 시간이 부여되기에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말만 휴게시간이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다. 어떨 때는 밥도 못 먹고 계속해서 일해야 했다. 휴게시간 없이 일을 계속했으니 그에 맞는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장님에게서 원래 그런 거라는 답변만 받았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도 억울했지만 10시가 퇴근 시간인데 10시 30분에 끝나도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 버스는 약 10시 10분이 막차이기 때문에 그 차를 탔어야 했는데 매일 늦게 끝내주는 알바 때문에 막차를 놓쳐 택시 타고 가기 일쑤였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퇴근 시간이 10시라는 것을 명시하였고 휴게 시간이 30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기에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다.

4일차

| 메뉴판 | | |
|--------|------|------|
| coffee | tea | ade |
| ~~~~ | ~~~~ | ~~~~ |
| ~~~~ | ~~~~ | ~~~~ |
| ~~~~ | ~~~~ | ~~~~ |



| 메뉴판 | | |
|--------|------|------|
| coffee | tea | ade |
| ~~~~ | ~~~~ | ~~~~ |
| ~~~~ | ~~~~ | ~~~~ |
| ~~~~ | ~~~~ | ~~~~ |



4일차

| 메뉴판 | | |
|--------|-----|-----|
| coffee | tea | ade |
| ~~~ | ~~~ | ~~~ |
| ~~~ | ~~~ | ~~~ |
| ~~~ | ~~~ | ~~~ |

손님이
재 왔어...
돈도 벌지
도움에 감사.



| 메뉴판 | | |
|--------|-----|-----|
| coffee | tea | ade |
| ~~~ | ~~~ | ~~~ |
| ~~~ | ~~~ | ~~~ |
| ~~~ | ~~~ | ~~~ |

점
사서...
근데...!



5 6
7



후니까
타른...
저금...
하...!

| 메뉴판 | | |
|--------|-----|-----|
| coffee | tea | ade |
| ~~~ | ~~~ | ~~~ |
| ~~~ | ~~~ | ~~~ |
| ~~~ | ~~~ | ~~~ |

3.000
금액...!



불편...
고맙습니다.
타른...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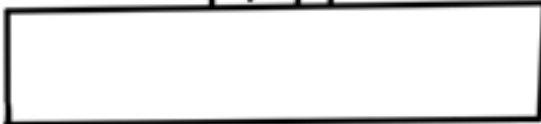
9

알바
힘들다....



8

려합니다.
구...
사...!



다른...
1,000...
...!

됐고
...!



5일차



주문 도와드릴게요
😊

고객이 생각하는
맛있는 메뉴로
주세요.

저희가
추천메뉴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라볶이 괜찮으세요?



네.
그냥
그걸로 주세요.

1
2
3
4



주문하신
마라볶이
드릴게요~

최음료에만
음주에 나간 후로
과음·환원 문제가
없어

으...



이거 맛이
너무 없애.
바꿔주세요.



5일차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께서
합니다.

주방이 가서
야채랑 물로써 뽕이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도 맛이 이상하면
다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그쪽이
먹기봐요. 맛이 어떤지
짜다고.



글쎄
먹어보라니까!
!

계산후

그러게



감사합니다.
또
와기요.

손님 봐도
안들어주고
요금 알바는 상 편해
그지?

나의 알바이야기

심사평

“

알바를 해봤거나 노동을 해봤다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보편적인 경험을 잘 서술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많은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를 잘 서술했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에 의한 갑질에는 ‘잘못되었다’고 욕하고 비판하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용자에 의한 갑질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반응하곤 한다. 하지만 손님에 의한 갑질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부당함은 물론, 일터 내의 권력관계와 위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용자의 한마디로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일터에서 ‘참아야 했던’ 많은 순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중략) 사장이 ‘알바라서’ 쉽게 함부로 대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라서 자신이 피해를 받았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며 겪었던 일들에 분노하고 있다.

한편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부당한 순간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생각, 주관이 좀더 담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사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한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부당한 순간들에 대한 관점을 담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

“

유일하게 그림으로 알바 장면을 표현한 작품이라 인상 깊다. 성폭력과 노동안전 문제에 대한 경험에 우리나라는 이야기를 서술했다. ”

”

+

“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겪은 노동과정을 상세하고 눈에 그려지듯 설명하게 인상적입니다. 특히 '항상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했다.', '~누구나 안다. 하지만 바쁘니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다.' 등과 같이 노동재해(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어느 직업이나 위험은 있을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잘못과 실수로 보이는 것은 바쁘게, 더 많은 일을 급급하게 해야하는 일터의 노동강도에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으로서 일터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위험 중 성희롱이 직장에서 권력관계, 여/남의 관계 하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또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주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일차 일기에 '아무래도 내 몸에 상처가 있어서 이 상처를 보면 기억을 못 할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몸의 기록이 노동재해를 겪은 어떤 순간과 감정, 후유증 등 같은 것들이 잔뜩 남은채로 노동하는 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노동자의 일상, 일하는 사람의 고단함, 한편에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몸을 얼마나 함부로 하고 있는지 고찰 등이 담겨 인상적이었습니다.

”

“

고객에게 또는 동료에게 무시당하고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직원”이라서 내가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경험, 빨리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다치고 화상을 입었던 경험 등 일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초년생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글이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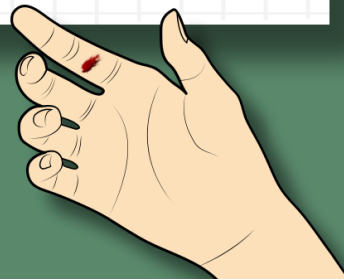
아르바이트를 통해 겪은 이야기로 연구소에서 제시한 키워드가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없는 점이 아쉽다. 마지막 웹툰을 그린 정성을 보여준 점도 참작되었다.

”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 나의 알바 이야기

2일자 필자에게 생긴 일..

"같이 일하던 동료가 글라스잔을 쌓다가 넘어뜨렸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잡으려던 순간 글라스잔이 깨지면서 내 손가락을 스치고 말았다. 처음에는 놀랐을 뿐인데 피가 뚝뚝 떨어져 당황했었다."



1

음식점 알바하면 쉽게 생기는 일..

? 식기나 잔이 깨져서 베이는 사고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겪은 사고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한번에 많은 글라스잔을 쌓으려다가 생긴 일!
손님은 많은데 직원은 적었고, 잘 깨지는 소재의 식기를 썼고, 장갑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잔을 잡으려 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 잘 깨어지지 않는 식기 사용
- ✓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직원도 늘리기
- ✓ 보호구-장갑 제공하기
- ✓ 노동자에게 사고 예방과 대응 교육하기



2



알바생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산재보험 미가입이어도 산재 신청 가능!

3 서빙 노동자에게 생기는 질환은?

"주방에서 설거지해서 나온 식기들을 옮겨야 했는데 무거웠기에 주말 알바를 하고 나면 팔목 발목이 아파 고생을 했었다."

음식서비스업에서 접객과 서빙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허리와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 음식그릇의 반복적인 운반으로 인한 근막통증 증후군, 허리 질환, 수근관 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 들고 운반하는 물건의 경량화
- ✓ 적절한 휴식 보장(1시간 당 10분 휴식)
- ✓ 중량물 취급시 서빙카트 제공
-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4

근골격계질환이 산재가 되려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표적인 근골격계 부담작업

-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 진동 작업
-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 나의 알바 이야기

3일자 필자에게 생긴 일..

" **금요일, 토요일에만 일하던 나는 평일에도 일하게 되었고 평소 주말에 10시 출근이던 나는 저녁 8시에 출근하여 아침 6시에 퇴근하게 되어버렸다. 10시간을 거의 새우고 새벽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



5

장시간 노동, 야간작업의 위험성



장시간, 야간노동 위험요인

뇌심혈관계 질환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는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야간 작업, 수면부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해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의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수면장애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 중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거나, 야간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새벽에 일찍 출근하거나 밤에 늦게 퇴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6

7 갑자기 늘어난 노동시간...


?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일할 사람이 없다며 다른 조의 근무까지 연달아하게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주말 마감조만 하던 필자가 갑자기 평일 중간조까지 함께 하게 되면서 하루 10시간 씩 야간에 일을 하게 되었다. 노동강도마저 높아 휴식도 없이 일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일하다간 건강에도 무리가 오며 작업 중 사고 발생위험도 높아진다.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 적어도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하기
- ✓ 근무 중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게공간 제공
- ✓ 지속적인 야간작업시 특수건강검진 실시

정보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군 발암물질!



8 특수건강검진이 뭔가요?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며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 (사업주가 건강검진 명단을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해야 검진이 가능)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유해요인

1.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등) 163종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7종
3.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등) 8종
4.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 선정작 2

나의 인생 첫 아르바이트는 진행 중!

나의 인생 첫 아르바이트는 진행 중!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 선정작

10월 31일 <직장 내 차별 이라서 가족회사는 가는게 아니랬어...>

몇 주째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큰누나가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집 앞에 새로생긴 떡볶이 집에 가서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이미 가서 물어보고 온 듯 하다. “○○떡볶이 아르바이트 직원 구한대!”

떡볶이를 좋아 하기도 하고, 음식 만드는 것을 배워 보고도 싶었다.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바로 옷을 입고서 집 바로 앞이라서 차비도 들지 않아서 면접을 보러 갔다. 3초만에 도착했다. 사장님께서 푸근한 인상에 사람이 좋아보였다.

나에게 이력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셨다. 바로 이력서를 작성해서 다시 면접을 보러 갔고 단번에 통과했다. 오! 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오늘부터 바로 일하세요! 10월 31일 나의 첫 아르바이트생 개시일이다.

사장님께서 이 곳에 2개월 전에 새로 점포를 내셨다고 했다. 나는 제대 후에 이 동네를 별로 돌아다니지 않아서 사실 잘 몰랐다. 프렌차이즈 떡볶이 집을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무척 바쁘고 정신없어 보이셨다.

나는 시급 1만원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싸인을 하고 나니 옷과 모자 앞치마 등을 챙겨 주셨다.

근무시간은 주 12시간 이었다. 하루에 4시간씩 3일씩만 우선 일해 보기로 했다.

하나하나 이제 일을 배워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한 분이 더 오셨다. 그 분은 사장님 아내의 동생이라고 했다. 그 분도 나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셨다. 나는 남자고 그 분은 여자였다.

나와 그 분은 같은 시급을 받고 일했는데 차별감이 느껴졌다. 음식 조리부터 시작해서 전화받기와 뒤처리 물걸레질 청소 등은 나 혼자 다 도맡아서 배우고, 하고 있는데 그 분은 앉아서 티비를 보면서 간단하게 떡을 뜯어서 분리하거나 잔심부름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 분은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내가 “저 지금 튀김 튀기고 있어서 전화 못받아요. 주문 받아주세요!”라고 외치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과연 저 분이 나처럼 전혀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어도 그냥 있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가족이니까...차별하구나....

어딘가 모르게 우울함과 억울함이 밀려 들었다. 두 사람은 가족관계였고 나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이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더 그렇지 않은 감정이 느껴지고 있다. 과연 저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과 걱정이 된다. 함께 으샤으샤 하면서 일하고 함께 일을 나눠 하는 것이 나만의 유토피아적인 생각인걸까? 잘 하고 싶다.

11월 1일 < 갑작스러운 화상 , 아버지의 산업재해가 떠오르다....>

너무 많은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오늘 너무 힘들었다.1초도 쉬지 못했다.

인력이 더 필요한 날이었는데 사장님께서서는 나와 본인 둘이서 어떻게든 버텨 보자는 생각이었는지 인력 충원 없이 일을 했다.

배달의 민족에서 5000원 할인 이벤트를 열었는데 우리 떡볶이집도 해당이 되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불티나게 전화 주문이 들어오고 포장 주문이 들어왔다. 너무 많은 주문이 밀려들어와 잠시 20분 정도 주문을 막아 놓으면서 까지 일을 했다.

사장님께서서는 마음이 급하셨는지 한꺼번에 주문이 들어오다보니 잘못 소스를 만들고 포장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토나오기 직전 까지 나는 떡볶이 소스를 만들고 튀김을 자르고 순대를 썰면서 포장을 하고 주문 전화를 받으면서 움직였다.

그러다가 치킨 주문이 들어와서 치킨을 튀기다가 잠시 옆 자리를 치우던 사이에 뜨거운 기름이 내 손에 다 부어졌다. 너무 놀라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지도 못할 정도의 아픔이 느껴졌다. “아악” 바로 찬 물에 손을 행구면서 아픔을 달랬다.

사장님께서 뛰어와 빨간게 부은 내 손을 보시더니 냉동실에서 얼음을 빼와서 비닐 봉지에 넣어 내게 건네 주셨다. “잠시 저기 앉아서 쉬고 있어”

“아 이렇게 많은 주문 들어왔는데 이걸 다 어찌면 좋지?...”

나는 잠시 찢질을 하면서 쉬었다. 내게 병원에 가보라거나 집에 가라고 하시지는 않았다. 간절하게 일을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원해 있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건축 일을 하시다가 잠시 발을 빼끗해서 현장에서 굴러 떨어지셨었다. 그리고 나서 발가락의 인대가 늘어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3주 이상 입원하셨다.

나는 그 소식을 나중에 제대하고서 가족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다.

우리 아버지는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셨다.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즉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부,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구급차에 실려 가셨다고 했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아팠지만 일을 못하는 동안은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다.

산재 처리도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들어놓은 개인적인 보험으로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전해 들었다. 나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처지였다. 나도 그냥 하루 벌어서 사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통통 부은 손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밀린 주문을 하나 하나 해결 하면서 아르바이트 종료 시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11월 2일 <1분 1초도 쉴 새 없이 일하는 곳 주휴수당 안주려는 사장님>

오늘은 사장님께서 내게 마감 하는 것에 대해 알려 주셨다.

사장님도 오픈한지 얼마 안 된 사업장이라 그런지 조그만 것에서도 예민하신 부분들이 보였다. 처음 그 이미지와는 또 달랐다. 특히 돈에 있어서 예민하셨다.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바쁘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장사 겁나 안되네, 나 담배 좀 피고 올게” 하면서 자주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처음에 하루 4시간씩 주 12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며칠 일을 해보고 나니 내게 마감까지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다.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하루에 5시간씩 일하면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에게 월요일과 화요일만 마감을 하고 수요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집에 와서 큰누나에게 물어보니 “너네 사장님 참 약았다! 15시간 이상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되거든? 3만 원 정도 더 받는 건데 그거 안 주려고 이틀만 힘든 마감 시키나 보다”라고 답했다.

‘아... 어른들의 세계는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나는 사실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를 잘 몰랐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월요일과 화요일만 마감하고 수요일은 한 시간 일찍 오겠네’라며 좋아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도 나중에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근로기준이나 노동법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은 집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사장님은 내게 14시간만 일하라고 권유했고 나는 알겠다고 답했다.

마감 일 자체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에도 집안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걸레질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마감 청소도 바닥을 쓸고 닦고, 주방 기기들을 설거지하고 물기를 닦고 내일을 위해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들이었다.

첫날 보았던 아르바이트생 누나는 어제와 오늘 안 나오고 있다.

내가 나오지 않는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나온다고 했다.

내게 사장님이 “한 번씩 바쁠 때 주말에도 나와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럼 그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해 주신다고 했다. 계약에는 없는 추가 근로니까.

나도 돈 버는게 좋고 어차피 시간도 있으니 그러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주말에 일하면 더 바쁠 텐데 시급을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 일단 내 시급은 만원이다. 이 역할에 충실하자! 그리고 더 똑똑해지자.

11월 8일 <추위도 너무 춥다 발 동상 걸린날.....>

급작스럽게 겨울이 되어 무척 날씨가 추워졌다. 집 안에서도 전기장판을 꺼냈다. 나는 추위를 많이 타서 집에서도 따뜻한 후리스를 입고 이불 두 겹을 덮고서 잔다.

내가 일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매우 춥다. 아무래도 하루에 5시간씩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편한 신발이 필요해서 당근마켓에서 크록스를 구매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나는 양말을 한 겹 신고서 크록스를 신고 일하다가 그만 생에 최초로 발에 동상이 걸려 버렸다.

매장 내부는 들어가자마자 찬바람이 불 정도로 매우 추웠다. 한 번씩 고객 분들이 포장을 하러 들릴 때마다 “여기 매장은 왜 이리 추워요? 밖 보다 더 추운 것 같아”라고 하면서 기다렸다. 사장님이 이 말을 잘 듣기를 원했다. 땀이 많은 사장님께서서는 여름을 위해 에어컨 공사는 해 둔 것 같은데 난방은 아직 되지 않았다. 물론 조리를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스 불은 계속 켜두지만 난방이 되지 않아서 몸 전체가 얼어붙을 것 같이 추웠다. 얼굴만 더웠다!

매장 자체도 거의 배달 위주이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한 구석에 위치해 있다.

주변이 산이고 바로 뒤에도 산이다 보니 그 매서운 바람 때문에 더욱 일하기 괴로웠다.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찌릿하고 간지러운 느낌이 일하는 동안 지속되었다.

아예 매장이 얼음 같았다.

아직 온전한 겨울도 아닌데 왜 이러지... 내 몸이 약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장님께 춥지 않냐고 여쭙봤더니 “아직 겨울도 아닌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추워해! 일 더 열심히 하면 추운것도 몰라... 정말 춥고 괴로운 건 내 마음이다!!”

“매출이 영 안 나오네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지...” 라며 되려 하소연을 하셨다.

나는 속으로 ‘이제 히터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라며 속으로만 이 말들을 삼켰다. 이날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정말 발이 퉁퉁 빨갛게 얼어 있었다.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가 내 발을 보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큰 누나가 내 발을 보더니 큰 다라이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내 방으로 가져다줬다. 컴퓨터 책상에 앉아 뜨거운 물에 발을 담궜다.

간지럽기도 하면서도 동상이 걸린 것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누나가 말했다. “내가 예전에 정육점에서 일한 적 있거든? 겨울에 일했는데 내가 고기 3근을 1만 원에 파는 판촉 행사를 했었어. 하루 종일 냉동고 앞에 서있고 계속 고기를 가지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말 나도 너처럼 손발이 다 얼었었거든!”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고, 그 다음 날 부터는 나는 크록스 대신에 양말 2 겹과 운동화를 신고 일하러 갔다. 그리고 안에 히트택을 입었다.

한동안 사장님께서서는 히터나 난방을 구매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챙기면서 일해야지! 어쩔 수 없다! 나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11월 9일 <이것이 바로 직장 내 감정노동인가?>

감정적으로 힘들다. 오늘도 사장님께서 적게 나온 매출 탓을 했다.

내가 출근을 하는 시간인 6시부터 11시까지는 가장 많은 주문이 들어온다.

가게가 오픈하는 11시부터 5시까지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장님께서 혼자 처리 하신다. 매장 손님도 거의 없고 거의 배달 주문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혼자서도 하시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주문량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거의 매일 매출에 대한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

나는 한 시간에 떡볶이를 12개 이상 만들고 포장하는데 그 떡볶이의 개별 단가 1만 원이 딱 내 시급이다.

여기는 프리미엄 떡볶이집이고 사람들이 떡볶이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순대나 오뎅, 튀김 등을 함께 구매하기 때문에 객단가가 더 올라간다.

그리고 나는 분명 성실하게 쉬지 않고 내 몫을 다 해내는 것 같은데 사장님의 매출에 대한 하소연까지 듣고서 맞장구 쳐줘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사실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도 아프다. 주방에도 긴 의자를 하나 놓아 주시면 내가 잠시 쉬고 싶을 때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주방에 의자를 놓자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거의 우리 가게 매출의 65~80%가 내가 출근하는 저녁 시간에 발생한다.

그리고 나는 매장의 온도가 매우 낮아서 추위에 떨며 일을 한다.

11시까지 마감인데 10시 59분까지 들어오는 주문을 받으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그 주문까지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11시가 훌쩍 넘는다. 엄마가 내가 너무 집에 안 온다며 직접 데리러 오셨다. “너 왜 아직도 일하고 있어 혼자!”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은 없다. 가끔 쿵피스 유통기한이 다해가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6개씩 포장해 주시는데 집에서 쿵피스만 먹는 사람은 없다.

사장님께서 잘못 주문하신 떡볶이가 남게 되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지만 집으로 가져온다.

아! 이게 사회 생활이구나를 느낀다. 군대에 있을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다.

그 당시에는 제대를 바라보며 이것도 끝이 있는 일이지! 라며 웃어 넘기고 참았지만,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느끼는 환경 속에서의 감정 노동은 내게 좀 더 무겁게 다가 오는 것 같다. 그래도 사장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본인의 속앓기도 해주신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얼마나 힘든지 등을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도 든다.

나의 인생 첫 아르바이트는 진행 중!

심사평

“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가 모두 하나의 단편 소설처럼 이어지고 있어서 잘 읽히는 글이었다.

(중략) 또 글쓴이는 글 중간중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잘 알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걸 알아야만 부당함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지점에서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이 좀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다.

분명 글쓴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을텐데 노동안전보건 혹은 노동권에 관한 교육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권리의 언어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더 나아가면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은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동상에 걸려도, 사장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지금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더 노력해서 성장하면 해결될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쉬웠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부당함을 참고 일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회이지만.

”

“

과거 아버지 경험을 통한 본인의 노동 안전 문제를 이어가는 것은 좋았으나 전반적인 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가 잘 안담긴 것이 아쉽다.

”

+

“

일기를 쓴 날마다 제목을 붙여 그날 있었던 상징적인 장면을 잘 살린 것이 인상적입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교묘하게 근무 시간을 짜는 사장의 모습과 함께 어렵지 않고 널널하게 일 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분식집이 사실은 1분 1초도 쉴 새없이 일 해야 하는 곳이란 것을 드러내는 것이 노동자의 건강권이 속도와 시간, 권력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날이 추운데도 제대로 된 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동상에 걸린 일, 매출이 낮다는 말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스트레스일 수 있는지 등 특히 1인 자영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에선 씩씩함도 있었는데요. 사장에게 난방 시설을 구비해줄 거란 기대가 안되기 때문에 내 몸은 알아서 챙기면서 일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아르바이트생 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얼마나 솔하게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규모의 음식점, 도소매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해야할지 고민도 듭니다.

”

“

본인과 주변인이 겪었던 업무상 재해 경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려고 한 점이 좋았다. 일기의 형식도 소설처럼 구성되어 있어 전달력이 높았다. 쉽게 배달되어 온 음식 뒤에 가려진 음식을 만드는 시간제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경험을 통해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

“

가족이 있는 곳은 가는 게 아니라는 이유를 재밌게 표현했으나 보다 인권적인 표현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본인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아버지의 산재경험을 떠올리면서도 가난의 되물림만 표현될 뿐 이것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누나의 등장은 이런 답답함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

+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나의 인생 첫 아르바이트는 진행 중!

11월 1일 피자에게 생긴 일..

"치킨 주문이 들어와서 치킨을 튀기다가 잠시 옆 자리를 치우던 사이에 뜨거운 기름이 내 손에 다 부어졌다. 너무 놀라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지도 못할 정도의 아픔이 느껴졌다. "아악" 바로 찬 물에 손을 헹구면서 아픔을 달랬다."



1

항상 주의해야 하는 화상과 화재

? 뜨거운 기름을 사용할 일이 많은데 화상과 화재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조리업무종사자는 불, 기름 옆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고 가스폭발, 튀김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 보호구 지급 - 화상 예방 장갑 착용
- ✓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 조리업무에만 집중토록 적정인력 확보
- ✓ 정기적으로 가스의 누출 점검
- ✓ 기름으로 인한 화재에 맞는 소화기 비치



2

화상 시 응급처치 방법

3

1. 원인물질 제거 (옷에 불이 붙었다면 불 끄기, 기름 등 뜨거운 물질 묻은 옷 벗기, 몸에 묻은 옷은 병원에 가서 제거)
2. 흐르는 수돗물에 10~15분 충분히 열기 식히기 (얼음 사용 X)
3. 차가운 물로 상처부위 씻어내기
4. 마른 수건으로 상처부위 감싸기
5. 119에 신고하거나, 화상전문병원 방문하여 도움 요청하기

4

조리업무종사자에게 발생 가능한 질환

KBS PICK | 2021.12.01. | 네이버뉴스

조리사 폐암 산재 올해만 14명, 급식실내 발암물질 조리용 노출

요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는 포름알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어류·육류 등이 탈 때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있다.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초미세분진인 조리흄이 발생하고 이러한 발암물질이 섞인 연기가 폐에 침투하여 폐암을 일으키거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청소시에 사용하는 유기용제 또한 독성이 있어 위험하다.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
- ☑ 적절한 환기기설(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기사 출처 - KBS뉴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란 노동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나의 인생 첫 아르바이트는 진행 중!

11월 8일 필자에게 생긴 일..

**추위를 많이 타는 나는 양말을 한 겹 신고서
크록스를 신고 일하다가 그만 생에 최초로
발에 동상이 걸려 버렸다.
매장 내부는 들어가자마자 찬바람이 불 정도로
매우 추웠다.**

6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나의 인생 첫 아르바이트는 진행 중! - Q&A 카드뉴스

고열작업과 한랭작업

7

고열작업

| | |
|--------------------|--|
| 고열작업의 예시 | 용광로를 이용한 광물 혹은 금속 제련, 고무 열처리, 유리 성형, 도자기 소성 작업 등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는 작업 |
| 나타날 수 있는 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사병: 현기증, 두통, 경련, 41~43도까지 체온 상승 - 열탈진: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등 증상 - 열경련: 지나친 발한에 의한 탈수, 염분 소실로 인해 근육경련 |
| 관리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 설치 -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 고열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휴게장소 설치 - 작업자에게 수분이나 이온음료 등 보급 |

고열작업과 한랭작업

8

한랭작업

| | |
|--------------------|--|
| 한랭작업의 예시 | 다량의 액체 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 계빙고, 냉동고 등의 냉각원에 의해 노동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낮은 온도에서 하는 작업 |
| 나타날 수 있는 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체온증: 전신 떨림, 맥박과 호흡 빨라짐, 근육경직과 탈수 - 동상: 피부가 붉어짐, 통증이나 저림, 물집 발생 |
| 관리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 설치 - 체온유지를 위해 더운 물, 음료수 배치 - 젖은 작업복 등 즉시 갈아입도록 조치 - 적절한 휴게시간, 휴게공간 제공 |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 선정작 3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 선정작

1일차

아침에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 문자를 보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짝막하게 하면서도 주5일 총 15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보자마자 바로 지원 문자를 보낸 것이다. 3시간 일하려고 매일 집에서 나가는 건 조금 귀찮았지만, 거리도 가깝고, 비록 작지만 그래도 프렌차이즈 빵집이어서 안전이 보장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갔다. 집이 근처여서인가 사장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문자를 보낸 지 10분 만에 바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러 나오라고 해서 후다닥 면접 장소를 갔다.

도착하니 생각보다 손님이 없었다. 그걸 보면서 속으로 좋아했다. 손님이 없으면 대부분 꿀알바였기 때문이다. 솔직히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다 이 마음을 공감할 것이다.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하니 안쪽에서 빵을 굽던 분이 나오셨다. 그분은 직원분이셨고 사장님 대신 면접을 진행해주셨다. 편의점에서 산 이력서를 건네자 내 인적 사항을 확인하신 직원분은 “집이 가깝네요. 언제부터 근무 가능하세요?”하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바로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출근해주실래요? 올 때 보건증이랑, 주민등록초본이랑, 통장사본 가져오시면 돼요”라 말하셨고 나는 “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도착한 지 5분 만에 그렇게 면접이 끝났다.

사실 집 가는 길에 조금 걱정했다. 이렇게까지 빨리 사람을 뽑은 것을 보면 현재 일할 사람이 급히 필요한 것일 테고, 지금까지의 내 경험상 급하게 사람을 뽑는 일자리는 대부분 마냥 쉬운 일을 하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하고 인터넷으로 카페 알바가 하는 일,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할 것을 검색해보고 난 뒤에 유튜브로는 카페알바 브이로그를 엄청나게 찾아보고 공부했다. 그러다 보니 출근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다.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돼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까 보니까 레시피 복잡하던데 내가 외울 수 있을까?’하고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 14분 만에 도착해있었다.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니 직원분이 나에게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라 하셨고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와보니, 시간은 딱 7시가 되어있었다. 첫날은 인수인계가 다였다. 긴장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너무 바쁘고, 외워야 할 일이 많으니 다른 생각을 할 정신이 없었기에, 여러 걱정들이 순식간에 내 머리에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첫날은 정말 정신없이 열레벌레 흘러갔다. 내가 한 일은 기계에 포터 필터를 넣고 원두를 갈아낸 것밖에 없었다. 정신없이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 벌써 3시간이 흘러있었고, 직원분의 퇴근하라는 말과 함께 나는 퇴근했다.

2일차

어제 첫날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게 너무 죄송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전날에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기억에서 꺼내 와 메모장에 싸그리 적었고, 오늘 출근해서는 꼭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또 출근 시간이 되었고, 어제처럼 지각하지 않고 제시간에 도착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빠르게 핸드폰 메모장에 적은 일들을 눈으로 스캔했다. 원래 핸드폰 사용은 금지지만, 이 정도는 이해해주는 분위기였다. 스캔을 다 한 다음 내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다.

일단 쓰레기들을 차곡차곡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 커피 찌꺼기나 커피 가루를 버리는 쓰레기통, 빨대 비닐이나 휴지, 영수증을 버리는 쓰레기통, 마지막으로 손님들이 사용하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새 봉투로 갈아 끼웠다. 직원분들은 대부분 빵을 구우시고 음료 만드는 걸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알바생의 몫이었다. 그런 다음에 청소를 시작했다. 빗자루질을 할 때 특히 빵 진열대 쪽은 더욱 꼼꼼하게 했다. 손님들이 위생에 예민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도 그렇지만 특히 보여지는 곳은 열심히 청소해야 했다. 물걸레질까지 다 하고 빨고 왔더니 어느샌가 손님들이 몰려오셨다. 내가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여기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 스피드가 생명인 걸 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긴장돼서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됐다. “어서오세요~” 베이커리가게가 처음인 거지 다른 알바는 해봤기 때문에 인사는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었다. 아마 나 말고도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리면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자동적으로 인사를 할 것이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따뜻한 거 두 잔 맞으시죠?” “예” 교육받은 대로 따뜻한 것이 맞냐고 정확히 물었다. 사실 암묵적으로 일하는 사람끼리는 그냥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거, 앞에 아이스가 붙으면 차가운 거라고 알고있지만 손님들은 아이스도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되짚고 넘어가라고 하셨다.

인수인계는 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센스나 팁까지도 알려주신다. 어제오늘은 대부분 포스기를 쓰는 법을 배웠다. 커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기를 다룰 수 있어야 가게가 원활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일단 오늘도 대부분 포스기로 결제를 진행하고, 그다음 빵을 포장하거나 원두를 가는 일만 했다.

3일차

인수인계를 받고 몸은 아직 익숙지 않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출근길이 첫날처럼 마냥 무겁지는 않았다. 게다가 같이 일하는 직원 언니가 착해서 잘 몰라서 벅벅거리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나 “첫날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하고 위로해주셔서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늘도 역시 기본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새 봉투를 끼운 다음 본격적인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사실 나는 청소를 싫어하진 않는다. 오히려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 그런 나에게 청소 시간이 두려운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매트를 들어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 발 빠르게 원두를 갈고 샷을 뽑고 음료를 제작하고 거기다 포스기에 빵 포장에 이곳저곳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땅바닥에 빵가루나 커피 가루를 흘리게 된다. 가루들이 있는 상태로 땅을 밟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자칫하면 발을 디뎠을 때 미끄덩하고 넘어지게 되니까 직원들이 있는 땅에는 미끄러져 넘어지지 말라고 매트를 깔아놓는데, 그 매트가 두꺼운 고무 재질이다 보니 엄청나게 무거웠다.

빗자루질을 할 때 매트에 걸려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매트를 돌돌 말아 세워 놓아야 되는데, 땅에 흘린 물이나 커피를 흡수시키니 질퍽질퍽해져서 땅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무게도 훨씬 무거워져 너무 힘들었다. 출근하자마자 이 일로 몸에 힘을 다 빼는 정도였다. 처음에 할 때는 처음 느껴보는 무게라 내 몸을 몸 가눴다. 이리저리 내 몸이 매트를 따라 흔들거려서 직원 언니가 도와줘야 할 정도였다. 그래도 3일 정도 일했다고 조금 힘겹긴 해도 매트를 온전한 내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성공시키니 뿌듯했다.

청소를 다 마치고 나니 기다렸던 듯이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청소할 때는 한 명도 없다가 청소 끝나자마자 끝난 걸 알았다는 듯 귀신같이 오는 손님들이 너무 신기했다. 물론 청소 도중에 오는 것보다 이편이 훨씬 좋았다. 오늘은 원두를 가는 것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원두를 갈아내서 갈아낸 가루를 커피 머신에 끼워서 샷을 뽑아내면 됐다. 샷을 뽑을 때 포터필터가 돌아가지 않도록 머신기에 끝까지 끼워 넣어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손목이 좀 아팠다.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직업병이란 게 왜 생기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힘쓰는 일이 하나하나 몸에 축적되면 병에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겠구나 싶었던 것이다.

4일차

어제 그렇게 손목을 쓰고 퇴근해서 자고 일어나니 웬지 모르게 손목이 욱씬거리는 느낌이였다. 손도 많이 쓰면 굳은 살이 박혀 안 아픈 것처럼 손목도 그러지 않을까,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그만두거나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서둘러 출근을 하고 내가 할 일들을 해냈다. 매트를 드는 일은 아직 힘들었지만 나머지는 다 적응이 됐다.

청소 말고 포스기도 금방 적응하게 됐는데, 첫날에 집에 가서 사진으로 찍어둔 빵 이름들을 다 외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노력했더니 금방 익숙해져서 뿌듯한 마음이 생겼다. 직원 언니도 내가 포스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더니 이 정도면 금방 적응한 거라고 빵 이름을 다 외운 게 대단하다고 했다.

그 말에 괜히 의기양양해진 나는 속도를 점차 늘려가기 시작했다. 첫날에 굼벵이 같은 모습은 사라진 것이다. 어느 정도 스피드가 붙고 침착해진 내 모습을 본 직원 언니는 이제 아메리카노 말고도 다른 음료들을 만들라고 말했다. 계속 계산이랑 빵 포장 일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없는 잠깐의 틈에 언니가 나한테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했다.

첫날에 교육할 때는 대충 과정을 보여주며 분위기 정도만 파악시켰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시키셨다. 유튜브에서나 보던 우유 스팀을 했는데 너무 신기했다. 스팀을 할 때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우유를 휘감는데 이때 손을 잘못하고 떼면 우유가 사방팔방으로 튀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했다. 게다가 스팀하고 나면 한순간에 열이 치솟아서 온도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손도 조심해야 했다. 뜨거우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특히 더 강조하셨다. 이렇게 집중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정신없을 때는 안 시키셨던 거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아이스티나 라떼, 에이드, 티 같은 레시피들을 다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여기가 프렌차이즈이긴 해도 규모가 작아서인지 메뉴들이 적어서 유튜브에서 본 다른 가게들보다는 종류를 외우기 쉬웠다. 크게는 스팀 하는 방법만 알면 라떼는 거의 분말 가루의 종류만 달라질 뿐 만드는 매뉴얼은 대부분 똑같아서 쉬웠고, 에이드도 얼음 넣고 하는 일은 똑같고 그냥 시럽 종류와 양만 다르게 하면 돼서 할만했다.

이런 것들까지 익히고 나니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일하는 느낌이 나고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마 내 예상인데 초반에는 위험해서도 있지만 교육받자마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일차 보다 지금에서야 더 제대로 알려준 것이 아닌가 싶다.

5일차

본격적으로 교육을 다 끝마치고, 적응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모른다고 무섭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제 나도 가게의 일원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할 차례였다. 처음에는 의자 없이 서서 설새없이 움직여야 하니 좀 힘들었지만, 근무가 3시간밖에 안 돼서 조금 힘들다 싶으면 퇴근할 때가 다 되어서 괜찮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에 투입되니 몸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직원 언니는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진 것이 보이자 원래 본인이 하던 빵 굽는 일에 더 시간을 쏟으셨기에 포스나 음료 만드는 것은 대부분 내가 해내야 했다. “포터 필터를 끼우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언니에게 손목이 아픈데 언니는 어떻게 적응하셨냐”하고 여쭙보니 손목이 아니라 팔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팔을 쓰는데 처음 쓰는거라 어정쩡하긴 해도 확실히 손목이 아프지 않아서 이 방법을 몸에 익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서오세요.”하고 손님 주문을 받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하는 창문으로 전달해드렸다. 그리고 나서 몰려오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데 아메리카노를 받은 손님이 창문을 황황하고 두드리시길래 열고 무슨 일이시냐 여쭙니 커피가 잘못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네? 아까 따뜻한 거 달라고 하셨잖아요.”하니 무슨 소리냐고 아이스 달라했다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였다. 손님들은 밀려오고 처음 겪어보는 일에 굉장히 당황했다. 사실은 억울했다. 교육을 받고 나서 아이스라는 말이 붙지 않는 이상 꼭 따뜻한 거 맞으시냐 여쭙았는데 맞다고 해서 그렇게 드린 거였기 때문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 언니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음료 다시 만들어 드린다고 나 대신 사과드리고 그렇게 내 실수로 치부된 채 일은 마무리되었다. 음료야 다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 너무 창피했다. 학창 시절에 칠판 앞으로 나가 혼나던 애들도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음료를 다시 만들어 내미니 탐탁지 않은 얼굴로 나를 째려보시곤 손에서 획 하고 낚아챈 다음에 안녕히 가시란 인사도 무시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절끔 나올뻔했다.

한 번 실수하니 적응했다고 생각해 올라간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아까 그 상황이 생각나 우울해하다 보니 스팀 하면서 그만 실수로 스팀 한 우유가 담긴 컵 몸체를 잡아버렸다. 엄청나게 뜨거운 우유가 담긴 컵에 나도 모르게 ”아!“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언니가 빨리 찬물에 씻으라고 했다. 화상을 입으면 안 됐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우유를 손에서 놓쳐 땅바닥에 뿌려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약과라고 생각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감자튀김을 튀기다가 손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는 애들이 허다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나 정도로는 보험처리도 안 될 것이 확실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고 수고했다는 언니의 말과 함께 퇴근했다. 솔직히 일이 힘든 것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손님의 호통을 들은 것은 생각보다 오래 내 머릿속에 남아 나를 슬프게 했다. 그래도 어찌겠나 끝까지 해야지. 실수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오히려 실수 했기에 더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심사평

“

5일 차 이후에 어떻게 알바노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일기입니다. 내가 보다 안정한 일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면 아닌 곳보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법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일자리를 구해보지만 실제 현실에선 그런 것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에 익숙해지고 나의 노하우가 쌓이고, 직장 선배가 일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싶고, 더 재미있게 해보고 싶다는 필자의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한편에선 이런 노동자의 마음을 이용하고, 실망시키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고민도 일게 했습니다.

(중략) 또한 업무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기 보다 노하우나 팁들이 생기고,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일한다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비스직종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직종인데, 필자 역시 본인은 명확하게 안내를 했지만 손님이 그렇지 않다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한 상황에서 진심이 아니지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어떤 굴욕적인 순간에 느껴졌던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는 부분은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당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권력 관계에서 한참 밑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청소년/청년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사회분위기, 문화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제목에서 본인이 겪는 실패를 넘어야 하는 장벽처럼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를 개인이 감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알바를 시작하고 일련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주제와 적합한 이야기와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빈약하다. 다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고한다는 내용도 취지에 벗어나는 듯 하다.

”

+

“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잔잔하고 연결성있게 풀어나간다. 알바를 시작한 날부터 5일차가 되는 날까지의 경험을 생생하게 정말 일기처럼 쓴 것이 좋았다.

카페 손님들의 잘못이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감이 화상으로 이어질 뻔했다고 글쓴이는 말한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 만약 카페 손님이 갑질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면? 아니면 갑질을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대응하고 자신의 감정노동과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동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조건의 일터에서 그가 일할 수 있었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런 3가지 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노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자신이 성장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처럼 쓴 부분에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갑질을 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사회가 문제이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일터가 문제인 것인데 자신의 노력, 자신이 성장할 문제로 서술하는 것이 어찌보면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노동안전보건 키워드의 활용은 적었지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해서 적응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팔이 아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손님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속이 상하기도 했던 과정들을 제목과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점이 독특했다.

”

“

웬지 <나의 알바이야기>와 연결되는 듯한 내용이 있다. 키워드 중 노동시간에 대한 내용만 없고 나머지는 포함되었으나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사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3일차 필자에게 생긴 일..

" 빗자루질을 할 때 매트에 걸려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매트를 돌돌 말아서 워 놓아야 되는데, 땅에 흘린 물이나 커피를 흡수시키니 질퍽질퍽해져서 땅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무게도 훨씬 무거워져 너무 힘들었다."



1

내가 근골격계질환에 걸린다면?

?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많이 하다 보니 허리디스크에 걸렸는데 어떡하죠?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지 않게 작업환경을 바꾸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 재해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 허리가 원래 안좋았어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가속화 될 수 있기에 산재신청이 가능
- ✓ 산재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며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서도 제출 가능 (단 신청서는 꼭 확인 필요)
- ✓ 요양이 끝나고 재발할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해 재치료 가능

2



4 산업재해 보상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 휴업급여**
휴업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의 지급
평균임금이 적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
- 장해급여**
치료가 다 끝났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해(1급~14급)가 생겼을 경우 보상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300일본)
- 상병보상연금**
2년간 치료에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단 폐질등급일 경우만 한정)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5일차 필자에게 생긴 일..

아메리카노를 받은 손님이 커피가 잘못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네? 아까 따뜻한 거 달라고 하셨잖아요" 하니 무슨 소리냐고 아이스 달라했다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였다. 손님들은 밀려오고 처음 겪어보는 일에 굉장히 당황했다.



5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

고객응대노동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

7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의 사전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전 예방 조치로써 고객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해야 한다.

사업주의 사후 조치

사업주는 사후 조치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휴게시간 연장 등으로 고객응대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 선정작 4

알바지옥

알바지옥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 선정작

1일차 <체대입시 강사 아르바이트>

2019년 3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지방에서 서울로 거취를 옮기게 되었다. 자취를 하면서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많아졌고,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지인의 소개로 2019년 4월부터 체대입시 강사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이유만이 체대입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니다. 나도 대학 합격 전에는 체대입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 학원의 학생이었던 그 당시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강사 선생님들이어서 이 일이 더욱 끌렸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달리 체대입시 강사 아르바이트는 부당한 일이 많았다.

알바는 오후 5시에 출근해서 6시 수업 전까지 간단한 청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매트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으며 사무실을 정리한다. 정규수업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나머지 보충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보충 수업을 진행하거나, 부상을 당한 학생들의 후속 처리(냉찜질, 스포츠 마사지 등)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모든 학생들을 살피고, 귀가 조치를 완료한 다음에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하루 일정으로 나는 주 3회, 한달 동안 알바를 나갔다.

하지만,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나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동안 주 3회, 4주동안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생각한 만큼의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내가 받아야 할 급여는 약 60만원이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급여는 약 30만원이다. 급여가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일을 먼저 시작한 동료 강사에게 급여 책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학원에서 일한 모든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수업 시간만 책정된다고 했다. 원래부터 체대입시 학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강사를 쓴다면서 말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알바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서 학원 원장 선생님께 따질 수도 없었다. 또,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알바라서 이런 사건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애초에 알바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시간에 맞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알아보고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알바를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를 찾기는 힘들 것 같았고, 당장의 자취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체대입시 알바를 그만둘 수 없었다.

2일차 <체대입시 강사 아르바이트>

체대입시 체육 학원 알바를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제대로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참고 일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체육교사가 꿈인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급여문제에 대해 참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들과 친밀해질수록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학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웃으면서 “서진이 살 빠져 보이네” 라고 하시며, “예쁜 나이일 때 다양한 옷을 입어야지”라고 조롱하셨다.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점점 원장님과 친해지며 이런 성희롱적 발언의 빈도수가 늘어갔고, 듣다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오늘은 똑같은 옷이네. 빨래는 해야지. 그래도 몸매가 예쁘니까. 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지.” 등등 옷과 얼굴, 몸매 지적이 계속해서 늘어 갔다. 점점 학원에 가는 날마다 입는 옷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외모와 몸매 지적을 받을 생각에 치가 떨렸다. 그래도 나는 자취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위해 참고 또 참으며 나갔다.

나는 억지로 참고 견뎠지만, 그러던 와중에 참지 못할 일이 생겼다. 갑자기 원장님께서 꽤 오래 일했으니 밥 한 번 사주겠다고 나를 차에 태우고 밥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뜻으로 밥을 사주시는거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밥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조차도 학원에서 듣던 외모지적들이 계속 이어졌다. “서진은 키, 몸무게,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돼?”, “눈은 예쁜데 코만 별로니까 성형하면 되겠다.”, “선생님이 너를 많이 좋아해서 말해주는거야. 오해는 하지 말고.” 등등 정말 무례하고 선이 넘는 발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3개월간 이 알바를 하면서 쌓였던 것들이 한 순간에 터져버렸다. 그 때 나는 더 이상 알바를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고, 원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차 안에서 빨리 벗어났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난 나서 당장의 자취비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나의 약 3개월 간 체대입시 알바는 끝이 났다. 사실은 학원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고 정이 쌓여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또, 미래 나의 꿈을 위해서라도 버티고 계속 알바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급여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뿐만 아니라 도를 넘는 성희롱적 발언들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줬기에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체대입시의 좋지 못한 상황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3일차 <상하차 아르바이트>

2021년 8월, 나는 몇일 후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서 오늘부터 일당을 주는 '쿠팡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아침 6시쯤에 기상을 한 후 나는 셔틀버스를 타러 갔다. 2시간 후 물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본인 확인을 한 후 모든 짐을 맡겨둔 채 일을 시작했다.

물류센터라 그런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보였다. 일단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택배 상자들이 있었다. 이 외에도 난간이 없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낙상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택배들이 쏟아졌고 나는 이것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맡은 지역은 수원, 안산 등 이었다. 분류를 하는 도중 갑자기 택배가 물려왔고 나는 몇몇 택배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자 관리자 분이 오셔서 똑바로 해달라고 핀잔을 주고 가셨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건데 너무 뭐라고 하셔서 기분이 상하고 나에 대한 자책과 함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계속 서있고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니까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힘들다고 말하면 괜한 눈치를 주어서 나는 참고 견뎌야 했다. 노동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물류차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10분 ~ 20분 정도 쉬게 전부였다. 물류센터 환경도 열악했다. 날씨가 더웠지만 약 6대의 선풍기로만 20명의 사람들이 더위를 견뎌야 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관리자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다.

심지어 얼마전 내 친구는 일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에 금이 간 적이 있었다. 산업재해 처리를 받긴 했지만, 그 이후로 친구는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더이상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레젠테이션으로만 교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해야 사람들에게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더운 환경에서 일하면 열사병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써야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을 때는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 있기를 바란다.

4일차 <스키장 아르바이트>

지옥같았던 스키장 생활, 이제는 끝내고 싶었다. 나는 교수님 소개로 소위 ‘oo팸’이라고 불렸던 친구 2명과 함께 스키렌탈샵에서 겨울 시즌동안 일을 하게 됐다. 내가 스키장을 들어간 이유는 스키강습법을 배우며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습자로 샵에 들어갔지만, 시즌이 시작되고서부터는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손님에게 맞는 스키복 찾기, 스키 옮겨주기, 스키 신겨주기 등 모든 일을 해야했다. 또 일이 바쁠 때는 스키부츠와 스키대의 길이를 맞춰주는 것까지도 강습자가 해야했다.

그렇다고 렌탈샵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앉아있거나 떠들고 있으면 스키복 사이즈별 정리, 스키 건조 등의 추가 업무를 시켰다. 그러다 어느순간부터는 렌탈샵에 있던 의자, 책상까지 치워서 앉아있을 공간조차 있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쉬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 팀원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으나 나갈 수가 없었다. 우리가 처음에 입었던 스키복을 사장님이 선구매해줬기 때문이다. 그 금액이 거의 10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근무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가기가 어려웠다. 너무 지쳤던 난, 우리 담당 팀장님에게 쉬는 시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 말이 와전되어 사장님에게는 우리가 ‘일을 하기 싫다.’가 된 것이다. 이 말에 화가 난 사장님은 팀장의 뺨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때렸다. 이 일로 팀원들은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벌어졌다고 얘기하며 그룹에서 소외시켰다. 스키연습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고 가장 힘든 것은 숙소에서 함께 있을 때였다.

나는 생일 기점으로 스키장을 나왔다. 너무 건강했던 난, 스키장에서의 약 3주동안 몸도, 마음도 다 지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또 이때의 일로 내 소중한 친구들을 잃은 것이 너무 힘들었다.

나는 다시 학교에서 친구들을 보는 것이 무섭다. ‘따돌림’은 학창시절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성인이 돼서 내가 당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찾아보니 근로기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알았다. 만약 스키샵에 들어오기 전, 근무자 모두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나 역시 이를 미리 알았다면 상황에 맞게 대처했을텐데..의 아쉬움이 있었다.

5일차 <피폐해진 내 삶>

스키장을 나오고나서 삶이 무기력해졌다.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고,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다. 내 정신은 아직도 스키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스키장을 나왔지만, 스키복 금액을 다 갚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차액만큼은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도 문제고 교수님을 다시 뵈 명목이 없어서 이 역시도 걱정거리다.

실제로 사장님은 제대로 일 안하면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이었던 난 정말 무서웠다. 또, 나는 축구심판에 관심이 많았는데 해당 렌탈샵에 국제심판 분들이 방문을 했었다. 그때도 “너 축구심판하고 싶다했지? 나한테 잘보여~국제 심판 아는 분 많아” 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상황적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부모님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 속상해하고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 레깅스를 자주 신는데 레깅스가 ‘야한 옷’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입기가 꺼려진다. 당시 레깅스를 입고 샵에 내려왔었는데, 너 엉덩이 골 다 보인다고 흥을 보셨다. 너무 수치스러웠다. 나는 그런의도로 입고 내려온 게 아니었는데...누군가는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스키 자격증도 없는 우리에게 강사칭호를 달고 강습을 보내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없었다. 우리는 강습 당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정해진 일급제로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인 것은, 강사별 동일한 횟수의 강습을 맡는 것이 아닌 점이다. 사실 강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별은 남자아이가 더 많았다. 그러나 우리 샵에서는 남자아이는 여자선생님에게 배치하고, 여자아이는 남자선생님에게 배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남자아이들은 예쁜 여자선생님을 좋아하니깐”이라고 답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여자아이들을 강습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남자선생님, 여자선생님을 나누는 모습은 잘못된 성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설샵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한 만큼, 강사들의 성인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강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에 경각심을 갖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성과 관련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알바지옥

심사평

“

단순히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험을 사실 관계와 시간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험별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등 주관적인 판단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중략) 또 글쓴이는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고, 그 경험을 불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이야기한다. 문제해결과 개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이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다.

- 글쓴이는 스키 강습법을 배우기 위해 교수의 소개로 갔던 스키장 알바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스키장 사장이 교수님의 지인이며, 체육계에 아는 인물이 많아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기 망설였다.

이처럼 글쓴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로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사용자(관리자)와 노동자인 자신 사이의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겪었던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

“

일반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의 장래와도 연관된 일인데 법적인 문제점까지 접근하는 남다른 문제의식이 돋보인다.

”

+

“

일기를 읽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체대 입시 강사 아르바이트부터 스키장 아르바이트, 물류센터 상하창 아르바이트까지 전전하며 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이 필자의 문제였다기 보다 일하는 곳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성이란 이유로 성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젠더/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하는 학교는 오히려 방관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배움으로 생각하고 갔던 스키장에선 오히려 무기력함만을 갖고 나온 필자의 상황에 가슴 아팠습니다. 사장은 성적에 영향을 주겠다는 협박에 학업에까지 안좋은 일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남자/여자 선생님을 나누고 남자 어린이들은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성애 중심적, 외모 평가의 학습이 얼마나 곳곳에서 운영되는지도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

“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당한 일을 겪고 상처를 입게 되어 조금 더 알고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며 이야기하는 부분이 공감되었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노동자에게 많은 면에서 불친절한 일터와 사회가 바뀌어야 함을 드러내주었다.

”

“

경험과 노동 과정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여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다. 무엇보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본 과정이 이번 공모전의 주제와도 맞다고 본다.

”

+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 알바지옥

2일차 필자에게 생긴 일..

“OO이는 키, 몸무게,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돼?”, “눈은 예쁘데
코만 별로니까 생형하면 되겠다.”
“선생님이 너를 많이 좋아해서 말해주는거
야. 오해는 하지 말고” 등등 정말 무례하고
선을 넘는 발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1

일하러 왔는데 왜 그러시죠?

? 직장 내 동료, 상사,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해야 할 일 <남녀고용평등법>

- ✓ 연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 ✓ 성희롱 사실 확인 시 피해, 가해 당사자에게 적절한 조치 실시

2

정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직장 내 성희롱 대응방안

사내 대응방안

1.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알리기
2.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요구하기
3. 사업주가 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 사실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2022.5.19 시행)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작성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산업재해 신청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고,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신청 가능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 자체로 '모욕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처벌 가능하며 성희롱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창구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02-735-7544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제3회 청소년·청년 노동안전보건 일기 공모전 - 알바지옥

4일자 필자에게 생긴 일..

" 화가 난 사장님은 팀장의 뺨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때렸다. 이 일로 팀원들은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벌어졌다고 얘기하며 그룹에서 소외시켰다. 스키연습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고 가장 힘든 것은 숙소에서 함께 있을 때였다."



5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 제 말이 와전되어서 팀장님이 불이익을 당했고 그 일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팀장님의 뺨을 때리는 행위, 따돌리는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일 <근로기준법>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할 시 객관적 조사 실시
- ✔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취하기
-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 상시노동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필수 기재

6

정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대응방안

1.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알리기
2.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요구하기
3. 사업주가 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 사실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기타 진정 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산업재해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

8

정신질환도 산재가 되나요?



정신질환도 업무와 연관성만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질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질환들>

- 우울병 에피소드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환
- 적응장애
특정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이후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적 증상이 나타남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게 발생하는 불안장애
- 불안장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통칭

주최단위 소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구조 조정의 위협 아래 노동 조건이 후퇴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선 ‘근골격계직업병 투쟁’에

함께 하면서, 2003년 10월 24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산업재해는 기업의 이윤 중심 경영과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노동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대표메일: kilshlabor@gmail.com

홈페이지: <http://kilsh.or.kr>

-서울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 에이스콜드타워 1308호

연락처:02-324-8633

-수원

주소: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층

연락처:031-247-8633

-부산

주소:부산시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층

연락처:051-816-8633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는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통해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향남의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지역공동체의 가치,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의 공감, 자기중심적이거나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더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더하기’해나가는 열린 공동체라는 성격, 그것을 의료라는 틀을 중심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34-6 (행정리)

연락처: 031-352-0911

홈페이지: <http://www.gong-gam.net>